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 지역사회에 개방

포천시 신북면 새터교회 아름다운 전원교회 자리매김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 2리에 위치한 새터교회가 830㎡(약250평) 규모의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했다.

2007년 10월에 기공식을 가진 후 10개월만에 신축한 새터교회는 40년 역사를 지닌 교회로 포천시의 발전과 더불어 경륜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전원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새터교회는 박춘식 담임목사가 부임한 2002년도에는 전형적인 농촌교회의 미자립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터교회는 그동안 지역노인들

위한 무료미용봉사, 목욕봉사, 식사집대, 바자회 경로잔치 등을 실시했고 전 교인이 장학회원이 되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달 120여만원이상 지급하고있다.

새성전은 3층 건물로 1층은 식당, 화장실 쇼에배설 등을 갖추고 2, 3층은 예배실로 모두 초현대식 시설로 건축했다.

저층 건물이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시설한 새터교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된 교회로 입을 얹어 누구든지 교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이나 공부방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결혼식 등 지역주민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 2리에 위치한 새터교회가 830㎡(약250평) 규모의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했다.

들의 애경사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교육에도 나설 계획이다.

운천에서 성장해 서울에서 20여년간 목회하다가 2002년에 새터교

회에 부임한 박춘식 목사는 "가장 같은 교회를 목표로 동네에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춘식 새터교회 담임목사는 현재 포천시 기독교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K3 최강 용인에 설욕 다짐

후기 8라운드 승리 위해 조직력 강화

포천시민축구단(단장 강명호, 감독 차승룡)이 후기리그 개막과 함께 전기리그와는 달리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을 약체로 평가했던 전주EM과 천안FC 등은 조직력이 강화된 포천에 패하면서 상위권 도약에 먹구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포천이 전기리그와 달리 후기리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과감한 선수교체를 계기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포천은 전기리그에서 거둔 1승2무12패의 저조한 성적에서 벗어나 후기리그 현재 2승4패의 기록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등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천은 9월20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오후 7시에 열리는 Daum K3리그 후기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K3리그 최강팀인 용인시민축구단에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전기리그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한 뒤 몸도 풀지 못하고 경기에 들어가 7골을 내주며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에 따라 포천은 이번 홈 경기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는 전기리그에 패배를 설욕하고, 또 하나는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차승룡 감독은 "용인은 최강팀이다. 그러나 최강팀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라며 "활활하던 승산은 있다"며 "철저하게 경기분석을 한 만큼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후기리그 8라운드 경기인 포천시민축구단과 용인시민축구단의 경기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민축구단이 후기리그 개막과 함께 전기리그와는 달리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기고

범죄예방 실천 이동자율방범대

우리 집 큰애가 일통고 3학년 재학생이다. 고3에 어려운 수험생의 큰 고통을 안고 집과 학교를 오가며 고분분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을 매우 안타깝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것이다.

혹시 늦은 귀가 길에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미 다 자란 딸을 둔 부모들의 심정은 더욱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린 듯 이동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바쁜 업무가운데에도 범죄예방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방과후 귀가가 늦은 학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주며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편리함과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각자가 일선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마치고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 헌신하는 자선봉사대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없고 지적할 사람도 없다. 근무시간에 TV를 보며 장기를 두며 바둑을 두어도 무관하다.

같이 어렵고 힘들게 운전하던 시골 산골마을을 곳곳을 다니

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동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굳은 일을 찾아서 수고를 함으로써 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사회, 희생하는 사회의 표본이다.

가정에서, 이웃에게.. 이웃에서..지역으로 특히 나라에 중요한 정책과 국가에 녹을 먹고 일하는 높은 분들은 선거철마다 국민에게 두 손 빌어 끌어 모은 귀중한 표를 받아 국민을 대접하지 않고 탐관오리에 눈이 어두워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 때가되면 손을 빌려 낮은 자세를 취하시는 나랏님들! 이런 작은 실천과 소덕 없고 이익 없는 소박한 시민들의 자를 헌신처럼 많이 배워 많이 얻은 재물 두고두고 두손 모아 끌어 모으는데 힘쓰지 말고 이젠 선진국을 향한 자발적지국가다운 면모를 발휘하여 자식보다는 배고픈 사람과 아픈고 힘든 생활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넓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쁜 와중에도 시민들의 안정과 치안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동자율방범대에 박수를 보낸다.



김형석
조사위원회의 부주

(011-9262-4491)

ESSAY

귀지와 흰머리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애야, 머리가 가렵구나. 흰머리 좀 뽑아라. 정수리가 가장 가려우니 정수리부터 뽑아다오." 어릴 적 어머니는 저에게 늘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흰머리 때문에 머리가 가렵다 하시며 뽑아달라는 말씀에 저는 늘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흰머리를 한 올 한 올 찾아내어 족집게로 뽑아드리곤 했어요.

"흰머리는 유전이라서 너도 이따금 머리가 나오면 흰머리가 많이 나올거야. 엄마 닮아서..." 이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시로 뽑아드리던 흰머리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가려워서 도저히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어머니는 염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흰머리 뽑기에서 저는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살다보니 어느새 남편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머리로 제가 뽑아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다시 남편의 머리를 한 올 한 올 넘겨 가며 흰머리를 찾아내어 족집게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 지나자 이제 남편의 머리도 염색을 해야 했어요. 처음엔 제가 염색을 해주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해주었더니 꼼꼼한 제 물레 팔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어요.

성적이 좋은 딸이기는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애써 머리에 염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올 한 올 나오기 시작하는 흰머리를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혼자 머리를 뒤적거리며 갖은 인상을 다 써가며 흰머리를 뽑아내기 위해 애간함을 쏟곤 했죠.

그러기를 몇 개월이 지나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주름살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흰머리 몇 개 뽑다가 주름살이 생겨서 더 늙게 생겼네...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더니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물레 팔 딸이 자족집게를 들고 와서 흰머리를 뽑아주기 시작했죠.

저도 미안해서 처음엔 흰머리 한 개당 50원씩 계산해서 수고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흰머리가 늘기 시작하니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0원 정도 아르바이트 비용수준으로 지불하기로 했죠. 점점 흰 머리를 뽑아야 하는 시간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그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참견을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흰머리를 뽑아주는데 돈을 받고 뽑는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그냥 뽑아드려!!" 아버지의 말 한 마디에 딸이기는 더 이상 돈을 달라하지 못하고 그냥 무부수로 봉사하기에 이르렀죠.

흰머리를 뽑으면 머릿속이 시원해지면서 잠이 솔솔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저의 흰머리는 당분간 둘째 딸아이의 손에서 뽑혀나가 저의 아직 염색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입니다. 덕분에 저는 아직도 긴 생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귀지를 파내는 일이지요. 아이들 머리 때를 남편이 귀지를 제거 파내 주었습니다.

옛날 연애할 때부터 제가 항상 해왔던 일이지요. 그런데 저희 큰딸이 귀지를 파내기 시작한 다음부터 남편의 귀속도 큰 딸이 파내 보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아프지 않게, 부드럽고 섬세하게 잘 파내 주어야 해요. 큰딸이 큰딸에게 주로 귀 파내는 일을 맡기 때문이었죠.

저도 큰딸에게 귀지를 파라고 시켜봤는데 정말 시원하게, 간질간질 기분 좋게 잘 파내 줍니다. 저절로 잠이 솔솔 오죠.

그렇게 물레 팔에게 머리를 맡기고, 큰딸이 귀지를 파내게 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혀질 정도로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나른한 오후에 낮잠을 즐길 수도 있구요.

그러나 귀지를 파내는 일은 큰딸이 대학원 들어가 서울에 나가 있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웠는데 큰딸이 요즘 집에 내려와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다시 귀지를 파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오늘도 큰딸에게 귀지를, 작은 딸에게 흰머리를 보게 하고 나른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힘든 일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흰머리 좀 뽑아 달라, 귀지도 파달라고 시켜 보세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입니다.

은메달 송기태 문영수, 동메달 이원재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포천출신 전원 메달

제1회 설악배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가 9월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포천 출신으로 송기태, 이원재 선수가 핸드사이클로, 문영수 선수가 레이싱부에 참가해 하프(21km)를 달렸다.

대회 결과 송기태, 문영수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이원재 선수가 동메달을 따 포천시를 속초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포천시 장애인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포천시가 장애인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회 설악배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포천출신 선수들(좌로부터 이원재, 송기태, 문영수 선수)

웰빙 부사의(不生意) 조화(造化)와 조화(調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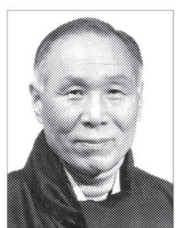
우리말에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합(化合)과 화합(和合)이다. 조화(造化)와 조화(調和)도 그렇다. 발음은 같으나 그 뜻은 다르다. 앞의 조화는 천지조화(天地造化)할 때 말하는 조화이고 뒤의 조화는 균형(均衡)과 조화(調和)라고 할 때 말하는 조화이다. 이때 앞의 조화는 '생겨날 때' 말하는 조화이고 뒤의 조화는 '어울릴 때' 말하는 조화이다. 그리고 조화(造化)는 자연(自然)의 영역이고 조화(調和)는 인간(人間)의 영역이다. 무엇을 생겨나게 하고 변화하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화(造化)요, 무엇을 어울리게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調和)란 말이다.

조화(造化)는 자연(自然)의 영역이고 조화(調和)는 인간(人間)의 영역이다

피아노에서 도 미 솔을 같이 누르면 제 각각의 음을 내면서 화음(和音)을 이룬다. 그런데 원소의 세계에서는 가벼운 기체인 수소, 마시먼 산해해지는 산소, 그리고 검은 솜에 들어있는 탄소를 조합하면 원래의 성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포도주 같은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變化)된다. 그래서 조화(造化) 속에는 화합(和合)이 아니라 화합(化合)이다. 화합(化合)은 이처럼 본질이 변하는 것이다. 조화(造化)속에서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이다. 화(化)는 조(造)와 통한다는 말이다. 자연의 이치(理致)와 자연의 섭리(攝理)에 따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날 때 화(化)와 조(造)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創造)와 창작(創作)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쓰임새는 다르다. 여기서 창조(創造)는 자연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창작(創作)은 인간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창작할 뿐 창조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observation)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부의 시발은 관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관찰은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통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찰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관찰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자연의 조화(造化)와 자연의 신비(神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화(造化) 속에는 이미 조화(調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좀 더 관찰을 가지고 보면 물리(物理)의 세계를 뛰어넘어 화학(化學)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화학(化學)에서 말하는 화(化)의 세계와 조화(造化)에서 말하는 화(化)의 세계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미 자연이 창조(創造)를 넘어놓은 것이다. 자연의 조화 속에는 만물이 오고가는 것이다. 생멸(生滅)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다만 그 속에서 미(美)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찾는 뿐이다. 물론 그 출발은 용(用)에서 시작된다. 용의 기능(function)을 다하면 미(美)로 넘어간다. 용과 아울러 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미란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균형(均衡)과 조화(調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음

처럼 조화(harmony)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조화(調和)를 찾는가? 아름다움 때문이다. 편안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화란 또 무엇인가? 조화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때 그 속에서 조화를 보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균형이란 정적인 것임과 동시에 기우어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조화란 동적인 것임과 동시에 하나를 지향하는 전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를 지향하는 조화(調和) 속에서 조화(造化)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고 화(和)의 세계에서 화(化)의 세계로 넘어가는 환멸연기(幻滅緣起)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꿈이 아닐는지?



이규임
인국영상제작학원 명예학장

(011-9262-4491)

현대의 茶 문화 4 · 중국의 차(茶)

차에 대한 특성 잘 이해하고 응용해야

황무연
지향대표

중국은 국토가 넓고 56개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고대역사(古代歷史)유물이 많은 곳이다. 이에 걸맞게 차(茶)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 다양한 차종이 자생 또는 재배에 의해 분포해 있다. 전 국토의 중부 이남에 분포해 있는데, 절강성 저장성, 귀주성, 사천성, 운남성,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 대만 등지에 고루 분포해 있다.

중국차는 한국차와 달리 성질이 강하고 향이 짙다. 이는 오랜 음차(飲茶) 습관이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한 연유로 한국차와 비교해 보면 길이에 차이가 있다. 차(茶)라기 보다는 약에 가까운 정도로 성분이 강한 경우가 많아서, 입수한 차에 대하여 특성을 잘 알고 응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수회 각각의 차산지나 대도시에서 세계차(茶)문화 엑스포 등을 통하여 차의 품평과 광고를 하고, 좋은 차를 선발하여 최고명차, 10대명차등을 선발하는데, 잘 알려진 차로는 용정차(龍井茶-룡정차)라 불리는 녹차가 있는데, 녹차류는 음차(飲茶) 유행 기간을 생산기일로 부터 1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차를 녹색→황녹색→흑색→백색으로 변해 가면서 품질 변화를 일으켜 오히려 인체에 해를 가하는 차로 바뀔 수 있다. 푸르른 기운을 잃거나 냄새가 변했거나 우린차가 탁하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녹차류는 발효를 막기 위해 뒤집고 유념을 반복한 차 이므로 보관중에는 차(茶)의 본성이 단 입하게 유지 되어야 하는 변질이 되어서는 안되는 차이다.

녹차계열로 귀주성에 도균모첨(都勻毛尖-위문마오지엔)이라는 고품질 고품격의 작설차가 있고, 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생산되는 복건성의 철관음(鐵觀音-티에관인) 역시 녹차에 가까운 계열에 속하는데 향과 품미가 좋다. 그리고 흔히 우롱차라고 불리는 오룡차(烏龍茶-우롱차)는 차의 모양이 마치 까만 색의 상상의 동물, 용(龍)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홍차계열의 차이다. 세계적으로 홍차를 흑차(黑茶-Black Tea)로 부르는데 차의 성상이 흑색이기 때문에 동양계열의 차를 블랙티로 총칭한다.

발효차인 홍차를 대표하는 차중에 기문홍차가 있는데 이 역시 80여종의 이름으로 품격에 따라 세분된다. 지금은 보호수로써 채엽이 불가능한 대홍포를 만든 차나무는 오늘날 차나무의 역사와 성장습성 차나무에 대한 연구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한 종류류의 특이한 차(茶)종에는 약발효 약유념을 거쳐 찻서 만든 후 자연상태에서 발효와 산화가 반복되며 김치를 익히듯 익혀진후 끓여 마시는 후발효차로 운남성의 보이차가 있다.

중국차는 그 종류만도 수천가지이지만 상표까지 따진다면 십수만 종에 이른다. 따라서 차의 응용에는 우리의 토종차를 먼저 이해한 후 충분한 학습으로 지식을 얻은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진품과 짝퉁에 대한 부분,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 성분검증에 대한 부분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여행중에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것 또한 건강과 관련될 수 있다.

더 알아보기:011-9750-1883